

■ 따로 노는 서남해안 프로젝트

# 공조·분담 '교통정리' 급하다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사업은 대규모 개발로 낙후된 국토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는 지향점이 동일하지만 상호 보완과 공조를 위한 협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가 난립해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사업추진 걸림돌 작용

◇우후죽순 특별법=전남도는 J프로젝트를 이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영암지역 간척지 양수와 정부의 지원 확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특별법은 사실상 J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S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서남해안포럼도 내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 준비작업에 나섰다. 이 특별법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행정기관 설치, 투자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남·경남·부산시는 남해안 발전

을 위한 투자유치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칭)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2007년 대선 등을 의식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특별법 난립 제정 난망

그러나 J프로젝트의 일환인 F1특별법과 S프로젝트 특별법은 지역 연관성이나 사업 방향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닌만큼 비록 시차는 있지만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을 꺼내들 경우 되레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조와 분담=전남도는 영암·해남 등 J프로젝트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S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면 생겨날 수 있는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S프로젝트가 물류, 바이오산업과 함께 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면 J프로젝트의 주력 분야인 관광·레저 분야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양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보 과정에서 차질

이 빚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관광·레저중심의 J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물류 주도의 S프로젝트에 적합한 사회간접자본 확보에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

J프로젝트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전남도는 서남해안포럼과의 '공조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즉 주요 구성인사들의 경력이나 면면을 따져 볼 때 서남해안포럼은 중앙정부에 입법지원 등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S프로젝트 구성단체에서 거론된 싱가포르 등 외국 거대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 "실무차원 협조 어려워"

서남해안포럼 측은 공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전개 과정이 상이해 당장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승철 서남해안포럼 팀장은 12일 통화에서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 더 나아가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모든 단체들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서남해안 포럼은 현재 민간수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므로 실무차원의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련 입법절차가 끝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열린우리당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광주 토론회

# "국민 기대만큼 개혁 성공하지 못했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밝힌 지지하락 6대원인

- ① 투박한 개혁·조절 실패
- ② 능력 노력 모두 부족
- ③ 오만함과 조급증
- ④ 일부인사들 독선
- ⑤ 당·정·청 조화 실패
- ⑥ 희망주는 지도자 부재



"개혁의 과정이 투박했고 개혁의 선후경중을 조절하는 데 서툴렀다" "능력과 노력이 부족했다" "오만함과 조급함에 빠졌다" "일부 인사들은 오만과 독선에 찬 행태를 마구 드러냈다" "당·정·청 간 일치와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도자가 없어 국민은 우리당으로부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목희 의원(사진)이 12일 광주에서 열린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토론회' 전에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우리당의 비전과 진로'라는 글에서 지적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낮은 6가지 이유다.

이 의원은 우선 "우리당은 의석 142석의 제1당이고 집권당이지만 국정의 수레바퀴는 빠져 거리고 지지도는 10% 중반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동네 돌아다니기가 민망스럽다고 한다"며 우리당의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지도가 낮은 이유로 먼저 "국민의 기대만큼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혁의 과

정이 투박하기도 했고 개혁의 선후경중을 조절하는 데에도 서툴렀으며 어렵게 이뤄낸 개혁을 잘 포장해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당을 자부하며 '동반성장-양극화 해소-선진한국'의 깃발을 들었지만 양극화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며 "어쨌든 우리의 능력과 노력은 부족했고 국민 눈에는 '뚝 부러지게' 이뤄 낸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인사들은 오만과 독선에 찬 행태를 마구 드러냈고 '똥 언행'이 매일같이 반복됐다"며 "국민에게는 이런 모습이 국민을 무시하는 '똥먹지 못한 집안'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열린우리당을 살릴 6가지 방법"으로 ▲중도개혁, 실용주의적 개혁 추진 ▲말하는 화법부터 고칠 것 ▲당·정·청이 서로 참고 양보할 것 ▲내년 대선을 위한 중도개혁 세력 통합 ▲민생경제 회복 ▲가시적 성과 양산 등을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이 12일 오후 광주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진로와 비전' 토론회에서 김근태 당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토론자의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서남해안 발전 모임' 결성

### 19일 청와대 방문 S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요구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을 대표해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영암·장흥)과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오는 19일께 청와대를 방문, 정부에 S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2일 최인기, 유선호, 주승용, 이낙연, 염동연, 서갑원, 김성근, 강기정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경태(전 국민은 행정), 조우현(전 건교부 차관) 서남해안 포럼 대표와 정찬용 서남해안

포럼 국제위원장(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서남해안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발기인이 되는 한편 최인기, 유선호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가칭)'을 결성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한 서남해안 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최소 30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전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인 유선호 의원과 최인기 의원은 민간단체인 서남해안 포럼 대표인 김경태, 조우현 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남해안 개발 사업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2004년 목포 방문시 공약 사항인데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며 "조만간 청와대를 방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 등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론 당 떠났는데...비전도 정책도 전혀 안보여"

### ■ 당원들 성토장 된 토론회

열린우리당이 도입키로 한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전국 순회토론회가 첫날인 12일부터 빠져거리며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는 당초 언론에 알린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라는 내용과 달리 '2006년 핵심 당원 연수, 열린우리당 진로와 비전'이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당직자 및 당원들의 질의 내용도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혀 다른 당에 대한 불만들로 채워졌다.

기조발제가 끝나고 지역 당직자와 당원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질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장흥·영암지역 조직부장이라고 밝힌 한 당직자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김태

홍·유선호 의원 등이 현재에 권한심판을 청구했는데 143명 여당 의원 중 극히 일부였다"며 "도대체 당론은 무엇이나"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당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광주시 서구지역 한 대의원은 "5·31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론이 잠시도 아니고 이미 완전히 당을 떠났는데, 비전과 정책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흥에서 온 한 당원은 "한미 FTA 협상이 농민을 죽이고 있고 전시장통권 문제는 이념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전시장통권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이기면 득이 되고 지면 실이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지역의 한 당직자는 "당 지도부에서 뉴딜정책을 내놨는데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국민에게 와닿는 것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광주시 금호지구에서 사는 한 당원은 "광주에 온 한전을 왜 전남 나주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당 지도부에 따져 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의원은 "분통 터지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자리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부각했고 이목희 의원은 "뉴딜정책의 구체적 정책은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김동원